

세계도시

2006. 3. 6. 제138호

목 차

도시경영·경제

1. 제조업 활력 창조사업 실시로 중소기업 지원 (오사카)
2. 주택단지 개발 시 양질의 지역도서관 건설을 위해 '도서관 세금' 부과 (영국)
3. 구청 업무시간 연장 (베를린)
4. 교외지역에 대규모 다국적기업 본부 및 R&D 기지 건설 (상해)
5. 뉴욕市 종합 로비개혁안 발표 (뉴욕)

복지·문화

6. 아동빈곤위원회 출범으로 어린이 복지문제 해결 기대 (런던)
7. 요식업 위생검사 결과 온라인 공개 (뉴욕)
8. 하치오지(八王子)市 2007년 4월에 보건소정령시(保健所政令市)로 변경 (동경)
9. 노숙자 자립지원 추진계획 수립 (동경도 신주쿠구)
10. 음식점 위생상태에 따라 분류·고시 (북경)
11. 동성연애자 안전 및 보건 담당 조정관 임명 (시드니)
12. 청소년 범죄예방을 위한 야간 농구대회 개최 (시드니)
13. 가족뿌리찾기의 날 행사 개최 (런던)

도시환경

14. 북경市 '원림녹화국', '공원관리센터' 신설 (북경)
15. 시드니市 담수발전계획 유보 (뉴사우스웨일즈)

도시교통

16. 자전거 이용률 제고를 위한 새로운 자전거 지도 제작 (베를린)
17. 국제경쟁력 강화 위해 '종합 물류 비전' 발표 (동경)
18. 고용주 보조 통근승차권제도 도입 (핀란드 헬싱키)
19. 혼잡통행료 부과 시범실시 (스웨덴 스톡홀름)

도시계획

20. 역사적 환경 보존을 위한 도시계획 지침 작성 (영국)
21. 베를린州와 브란덴부르크州 공동의 미래전망 모델에 대한 공개토론 계획 (베를린)

방재·안전

22. 유해화학물질 관리지침 작성 (상해)

1. 제조업 활력 창조사업 실시로 중소기업 지원 (오사카)

오사카市는 제조업을 지원하기 위해, 기업간에 네트워크를 형성하거나 이미 구축된 네트워크를 활용해, 신제품을 개발하거나 판로를 개척하는 사업을 대상으로 '오사카市 제조업 활력 창조사업 보조제도'를 2005년부터 실시하고 있다.

이 제도의 적용대상은, 시내의 중소기업체가 중심이 되어 2개 이상의 기업간에 네트워크를 구축하고자 하는 자 또는 이미 구축된 네트워크를 활용해 보조대상사업을 하고자 하는 단체다. 구체적으로는,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연구회나 강습회, 신제품 또는 신기술 연구·개발, 판로 개척을 위한 시장조사 등의 사업을 지원한다.

현재의 중소기업체 경영환경이 과거 대기업을 정점으로 하는 계열형 산업구조 하의 경영환경과 달라져, 자사 경영자원의 효율적 활용이 요구된다. 경영자원이 부족한 중소기업체는 자사의 강점을 살리면서 다른 영역과의 연대를 통해 상호보완해야 하고, 기업간뿐 아니라 산학관(産學官) 네트워크도 구축해야 한다. 오사카市는 이 보조제도를 통해 보조대상 사업비의 절반을 300만엔 한도에서 지원하고 있는데, 2005년에는 15건의 사업을 선정해 지원한 바 있다.

(http://www.city.osaka.jp/keizaikyoku/info/info_h241.htm)

>>> 전문가 검토의견

기업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기술혁신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가운데, 역설적으로 혁신의 촉진을 위해 동종 및 연관업체간 협력이 요구되고 있다. 중소기업의 경우, 경영자원과 여건, 기업간 협력이 불충분해 공공의 지원이 절실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 제도는 중소기업체의 경쟁력 강화에 효과적인 제도라 할 수 있다. 서울시의 경우, 서울중기청에 의해 산학연진소사업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나 제조업체만 지원하는 것이 아니며, 그것도 기술지도와 같은 소극적 지원 위주다. 따라서 이 제도와 같이 연구회나 강습회 개최를 통한 업체간 협력 분위기 및 관계 조성에서부터 실질적인 기술개발협력에 이르기까지 다각적인 측면에서 지원하고, 지원대상과 관련한 전략적 목표를 설정하는 등 지원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 정병순 도시경영부 연구위원(jbs66@sdi.re.kr)

2. 주택단지 개발 시 양질의 지역도서관 건설을 위해 '도서관 세금' 부과 (영국)

영국의 남동부 박물관·도서관협회(The South East Museum, Library and Archive Council-SEMLAC)는 앞으로 20년간 60만가구의 주택개발이 영국 남동부지역에 필요하다고 보고 이에 걸맞는 사회, 교육, 문화, 정보 센터 역할을 할 커뮤니티 도서관에 대해 연구했다. 이 연구는 주택단지 개발 시 소요되는 도서관 건립 비용과 개발업자가 부담해야 할 세금도 산정했다. 이 연구에 의하면, 개발될 주거단지 주민 한 사람당 90파운드(약 15만 3200원)의 '도서관

세금(Library Tax)'을 개발업자에게 부과해야 한다. 이를 실행하기 위해 지방정부가 도시개발계획(Local Development Framework)에 관련 항목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SEMLAC는 전했다.

(Planning, 2006. 2. 15)

3. 구청 업무시간 연장 (베를린)

구청에서 업무를 보기 위해 안내데스크에서 번호표를 받고 전자대기 게시판에서 자기 번호를 확인할 때까지 긴 대기시간을 감수해야 하는 것은 베를린 주민들이 겪는 큰 불편 중 하나였다. 베를린市 시민 및 노동사무국이 비공개로 실시한“베를린 구청 모니터링”사업을 통해 대기시간, 해당업무 처리시간, 인력배치 등을 구청별로 비교한 조사결과가 나왔다. 이에 따라 베를린市는 4월 1일부터 베를린市 각 구청의 업무시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이전까지 예약민원사무만 보던 수요일도 평상시와 같이 업무를 보게 되며 앞으로 토요일에도 근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Berliner Zeitung, 2006.2.17)

4. 교외지역에 대규모 다국적기업 본부 및 R&D 기지 건설 (상해)

상해市 서부교외지역 생산관련서비스업 밀집지구가 다국적기업의 지역본부 또는 R&D 기지로 주목받고 있다. 시는 이미 이 지역내 10만㎡는 기업의 지역본부 부지로, 50만㎡는 회의센터와 호텔시설 부지로 지정했다. 이 지역은 원래 장교공업개발구역(長橋工業區)으로 2005년 6월 개장해 상해市에서는 처음으로 대형 생산관련 서비스업 밀집지역으로 지정됐다. 외곽순환 고속도로와 인근 공업지역에 이르는 12번 고속도로가 지나간다는 교통의 이점, 환경적 우수성, 기타 많은 정책적 혜택으로 다수의 다국적기업 본부와 R&D 기지 입주가 예정되어 있다. 발전계획에 따르면 앞으로 2010년까지 약 230억위엔(약 2조 7700억원)이 투입될 예정이고 매년 교역액이 1000억위엔(약 12조 580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지역 인근에 있는 상해 최대의 도매시장집산지인 조안상무성(曹安商務城) 역시 면모를 일신하며 무역기지 건설을 위해 25억위엔(약 3014억원)을 새롭게 투자하고 있다. 완공 이후 이 지역의 상무 및 물류총액이 현재 73억위엔(약 8800억원)에서 180억위엔(약 1조 5670억원)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http://www.shghj.gov.cn:8080/gh05/front/contentWord.php?contentId=7742>)

5. 뉴욕市 종합 로비개혁안 발표 (뉴욕)

2006년 2월 16일 블룸버그(Bloomberg) 시장과 퀸(Quinn) 시의회 대변인은 시정부의 기강 및 투명성 제고와 세금 절감이 기대되는 5대 중점 로비개혁안을 발표했다. 블룸버그 시장 시의회 시정연설에서 발표한 이 개혁안의 5대 중점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로비스트의 시공무원에 대한 선물 금지, ②로비법의 적용 강화와 최고벌칙 상향조정, ③로비스트 고객의 정보 공개, ④신속하

고 정확한 공표를 위한 온라인 서류처리 시스템 개발, ⑤로비법의 허점 보완. 이 개혁안은 제출 될 법안의 기초가 되며, 오랜 기간 미국 각급 정부에 만연한 부패 스캔들을 예방하는 데 효력을 발휘할 것으로 예상된다.

(<http://www.nyc.gov/cgi-bin/misc/pfprinter.cgi?action=print&sitename=OM>)

복지 · 문화

6. 아동빈곤위원회 출범으로 어린이 복지문제 해결 기대 (런던)

2월 19일 런던市 산하 독립위원회로 런던 아동빈곤위원회(London Child Poverty Commission)가 출범했다. 상대적으로 실업률이 높고 주거비와 교육비가 많이 드는 런던에서, 전국 평균 빈곤층 어린이 비율인 28%보다 높은 41%의 어린이가 빈곤으로 고통받고 있다.

런던 아동빈곤위원회는, 정부, 사회복지단체, 기업, 학계, 노동조합, 민간단체 출신의 다양한 위원으로 구성되어 시장 및 시의회에게 어린이 빈곤문제와 관련해 정책제언을 하거나 보고한다.

현재 빈곤층 어린이 중 1/3은 제때 식사를 제공받지 못하는 등 교육 혜택은커녕 기초적인 의식주조차 해결하지 못한다는 조사결과가 나와 있다. 영국정부는 2020년까지 빈곤으로 고통받는 어린이가 없도록 하는 장기목표를 수립하고, 빈곤층 부모가 어린이를 제대로 부양할 수 있게 취업기회와 세금감면 혜택을 주고 있다.

(<http://new.bbc.co.uk/1/hi/england/london/4731188.stm>), (<http://www.london.gov.uk/>)

>>> 전문가 검토의견

최근 저소득층 복지문제에 대해 노인, 장애인, 여성, 아동 및 청소년 등 대상별로 정책이 세분화되면서 정책 효과가 높아지고 있다. 빈곤은 특히 아동에게 큰 고통을 주고, 빈곤의 장기화, 빈곤의 세습화로 이어진다. 이런 차원에서 아동빈곤에 초점을 둔 런던의 아동빈곤위원회 출범은 서울시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서울시에 시장이나 시의회에 복지정책을 제언하는 위원회로 사회복지위원회, 장애인복지위원회, 청소년육성위원회가 있다. 서울제도 아동복지위원회를 구성하거나, 아니면 사회복지위원회 기능에 저소득아동복지를 포함시키고 관련 위원 비중을 높이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 신경희 도시사회부 연구위원(skhee@sdi.re.kr)

7. 요식업 위생검사 결과 온라인 공개 (뉴욕)

뉴욕시는 2만개 이상의 레스토랑에 대한 최근의 위생검사 결과를, 상호명, 우편번호, 행정구역, 검사점수, 황금사과상 (Golden Apple Award) 수상 음식점 등 항목별로 검색이 가능하게 정리해

서 온라인으로 공개했다. 전문보건 학사학위 소지자인 위생검 사요원들이 음식재료 준비에서부터 요리가 손님에게 제공되기 까지의 전 과정을 평가했다. 뉴욕시 위생당국은 2004년 시범 실시를 시작으로 최고 안전도 기준을 달성한 음식점을 인증하는 황금사과상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황금사과상 수상 음식점 에게는 인증서와 도안이 수여된다.

(<http://www.nyc.gov/html/doh/html/rii/index.shtml>)



8. 하치오지(八王子)市 2007년 4월에 보건소정령시(保健所政令市)로 변경 (동경)

동경都와 하치오지市는 하치오지市가 보건소정령市로 바뀌는 것을 2004년 6월부터 협의해 왔는데, 2007년 4월에 移行하기로 최근 합의했다. 이에 따라 현 동경都 하치오지 보건소는 2007년 4월부로 하치오지市로 이관된다. 보건소정령시 제도는 도도부현, 정령지정도시, 중핵시, 특별구 이외에도 정령(지역보건법시행령)이 정하는 시는 보건소를 설치할 수 있다는 규정에 근거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인구 30만 이상 시는 보건소정령시로의 이행을 검토한다.”는 기본방침을 세운 바 있다.

보건소정령시가 되면 보건위생에 관한 대부분의 도도부현 권한이 일괄적으로 옮겨 가기 때문에 시는 모자보건사업 등 이용빈도가 높은 보건서비스와 함께 동경都 보건소가 하던 전문적 업무를 통합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복지시책과 연계된 종합적인 보건시책과 지역실정에 맞는 식품·환경위생시책을 전개할 수 있게 된다.

이양될 주요 업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대인보건서비스 면으로는 정신보건복지법에 따른 정신장애자 정신상담·지도와 감염증법에 따른 감염증환자 입원·이송 조치가 있으며, 생활환경보 건서비스 면에서는 이용사법 및 미용사법에 따른 이·미용시설 영업허가·감시와 식품위생법에 따 른 음식점영업 영업허가·감시·지도가 있다.

(<http://www.metro.tokyo.jp/INET/OSHIRASE/2006/02/20g2f400.htm>)

9. 노숙자 자립지원 추진계획 수립 (동경도 신주쿠구)

신주쿠區는, 2004년 2월‘노상생활자개수조사’(동경도 실시) 결과 노숙자수가 23區 중 가장 많 은 것으로 드러났고, 동년 7월 동경都가‘노숙자 자립지원 실시계획’을 수립한 점을 고려해 동 경都와 23區의 공동사업을 통한 광역 대책을 추진해 왔다. 이번에 신주쿠區가 새롭게‘노숙자 자립지원 추진계획’을 수립한 것은 그동안의 노숙자 대책사업을 개선해 실효성 있는 종합적인 노숙자 자립지원사업을 실시하기 위해서이다.

계획기간은 정부의 특별조치법에 의한 기본방침을 시행 5년 후 개정하도록 되어 있는 점을

고려해 2006년도부터 2010년도까지의 5년간으로 정했다. 2002년 8월에 ‘거리노숙자 자립지원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의원입법으로 제정되었고, 이 특별조치법에 근거해 일본정부는 2003년 7월 ‘거리노숙자 자립지원 등에 관한 기본방침’을 정한 바 있다.

(<http://www.city.shinjuku.tokyo.jp/fukusi-web/index/000007/001659.html>)

10. 음식점 위생상태에 따라 분류·고시 (북경)

북경시는 금년 중 2만여 개 음식점에 대한 위생상태를 조사해 A, B, C, D의 4등급으로 분류하고 인터넷에 공표하기로 했다. 외식을 위해 음식점 위생상태를 알고자 하는 시민은 북경시 위생감독 홈페이지(www.bjhi.com.cn)에서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북경시는 ‘북경시 요식업계 계량 등급화 실시방안’에 따라 금년 말까지 음식점 위생상태를 평가해서 4등급으로 분류해야 한다. A급은 위생상태가 우수하고 위생사고 위험이 전혀 없는 영업점이고, D급은 위생상태가 비교적 불량하고 위생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영업점이다. 현재까지 만여 개 음식점에 대한 위생평가를 마쳤다.



(<http://www.ben.com.cn/WLZB/20060215/GB/WLZB^1651^3^07W101.htm>)

11. 동성연애자 안전 및 보건 담당 조정관 임명 (시드니)

나날이 증가하는 시드니의 남성동성연애자, 여성동성연애자, 성전환자, 양성애자인 주민과 관광객의 보건은 우선적 행정업무 중 하나다. 클로버 무어 시장은 2006년 2월 17일 이들의 안전과 보건을 위해 썸 디첼을 조정관으로 임명했다고 발표했다.

첫 임명된 조정관은 앞으로 동성애 혐오에서 발생하는 폭력이나 성희롱, 노숙문제, 에이즈와 같은 성병문제의 방지 및 해결과 그들이 요구하는 각종 사안들을 처리하는 임무를 맡게 된다.

(<http://www.sydneymedia.com.au/html/2836-safety-first-for-the-citys-gltb-community.asp?orig=Home>)

12. 청소년 범죄예방을 위한 야간 농구대회 개최 (시드니)

시드니시는 청소년 범죄가 빈발하는 낙후지역인 레드펀과 워털루 지역에 1만 2000달러의 예산을 지원해 야간 청소년 대회를 개최한다. 시드니시는 청소년이 야간에 농구라는 활동을 통해 범죄와 반사회 행동 대신 즐겁고 사회적인 활동을 하도록 장려할 계획이며 이 사업을 다른 지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농구 이외의 다른 종목 대회의 개최를 지원함으로써 효과를 배가할 계획이다. 이 사업은 청소년 범죄가 심각한 미국 일부 지역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를 벤치마킹했다

(<http://www.sydneymedia.com.au/html/2832-city-backs-midnight-basketball-for-local-youth.asp?orig=Home>)

13. 가족뿌리찾기의 날 행사 개최 (런던)

1998년 신축 건물로 이전해 여왕 주관 하에 도서관 서비스를 시작한 이래 가장 많은 방문객이 대영도서관을 찾았다. 2월 12일 일요일에 열린 가족뿌리찾기의 날(Family History Day) 행사에서 3000명의 무료 입장표가 매진되었고, 비가 오는 날씨에도 행사 시작 1시간 전부터 시민들이 도서관 건물 밖까지 줄을 서서 기다리는 등 성황리에 행사를 마쳤다. 가족사와 가족관계 전문가 상담 및 강의, 시낭독회, 가족사와 가족관계를 표현하는 어린이 그림 그리기 행사가 준비되었으며, 30여개 가족사 관련단체가 부스를 마련해 뿌리찾기 정보를 찾을 수 있는 정보원을 소개하거나 단체별 전문지식을 제공하기도 했다. 현재 BBC2 TV에서 인기리에 방영되고 있는 "당신이 누구인지 아시나요?(Who Do You Think You Are?)" 프로그램을 통해 비전문가들이 자신의 가족사를 찾아가는 다큐멘터리가 소개되고 있다. 이번 행사는 개인 소외의 현대도시생활에서 대중문화와 개인, 개인의 과거와 현재를 하나의 문화행사를 통해 결집할 수 있는 새로운 대안문화의 가능성을 엿보게 했다.

(http://www.bbc.co.uk/london/content/articles/2006/02/16/family_day_feature.shtml)

도 시 환 경

14. 북경市‘원림녹화국’,‘공원관리센터’신설 (북경)

북경市 고시에 의하면 2006년 3월 1일을 기해‘원림녹화국’과 ‘공원관리센터’를 신설한다. 북경市 원림녹화와 임업자원에 대한 집중적·통일적 관리와 도시·농촌간 조화로운 발전을 위해 기존의 북경市 원림국과 임업국을 통폐합해서 원림녹화국으로 개편한다. 이와 더불어 시정부 직속의 국(局) 단위 사업소로 신설된‘북경시 공원관리센터’는 북경市 소재 공원에 대한 인사, 재무, 시설관리를 전담하게 된다.

(http://govfile.beijing.gov.cn/Govfile/front/content/22006006_0.html)

15. 시드니市 담수발전계획 유보 (뉴사우스웨일즈)

시드니지역의 극심한 물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뉴사우스웨일즈州정부가 강행하려던 시드니 담수발전계획의 전격 유보로, 州정부는 최소한 1000만불 이상을 배상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최

근 시드니 남서부에서 막대한 양의 지하수층이 확인됨에 따라 커널 담수발전소 신축계획은 무기 연기됐다. 이에 따라 州정부는 그동안 추진해온 두개의 담수발전소 건설 컨소시엄에 위약금으로 1000만불 이상을 물어야 할 상황에 놓이게 됐다. 도로·철도·보건·교육·치안·환경 등 제반 인프라 개선에 천문학적 예산이 소요될 전망이다 가운데, 州정부는 수자원 고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극심한 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약 1억 2000만불을 들여 담수발전소 건설을 추진했다.

(http://www.waterforlife.nsw.gov.au/p/waterprogressreport_2006.pdf)

도시교통

16. 자전거 이용률 제고를 위한 새로운 자전거 지도 제작 (베를린)

독일의 공공 자전거 클럽(ADFC, Allgemeiner Deutscher Fahrrad Club)은 베를린市 도시개발부 및 베를린-브란덴부르크 대중교통연합회(BVG, VBB)의 지원 하에 2006년 2월 새로운 베를린 자전거 지도를 선보였다.

총연장 1만 2000km의, 자전거 통행이 가능한 도로를 평가한 이 지도는, 목적지에 도착하는 데 가장 안전하고 편안한 도로와 대중교통 연계방법을 보여준다. 이와 함께 차량 통행량이 적은 구간, 자전거 이용에 용이한 아스팔트 포장길, 아릅드리나무들이 늘어선 매력적인 구간 등 자전거 이용 관련 상세정보도 제공한다.

베를린市 도시개발부는 6.5유로(약 8000원)에 판매될, 이 새로운 자전거 지도가 베를린 시민의 대중교통 및 자전거 이용률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대중교통연합회는 인터넷 홈페이지(www.vbbonline.de)에 각 역에 자전거를 주차할 수 있는 곳을 소개하고 있다.

(http://www.stadtentwicklung.berlin.de/aktuell/pressebox/archiv_volltext.shtml?arch_0602/nachricht2159.htm)



▲새롭게 선보인 자전거 지도에 포함되어 있는 지역

(<http://www.adfc-berlin.de/fahrradplan.com>)

>>> 전문가 검토의견

자전거교통 여건이 베를린시와 서울시가 다르기 때문에 이 시책을 대중교통연계 안내 목적으로 이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하지만 최근 서울시도 고수부지를 중심으로 자전거타기를 즐기는 층이 많아졌고 자전거도로망도 경기도 인근 도시까지 확충되었기 때문에 자전거타기를 중장거리까지 확대해 더욱 적극적으로 즐기도록 하는 계층에게는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도에는 자전거로 갈 수 있는 서울근교 명소와 주변 편의시설 정보는 물론 주행거리, 소요시간, 자전거 임시보관소 위치, 자전거 대여/반납 사무실 위치 등이 포함될 수 있다.

/ 이광훈 도시교통부 선임연구위원(kwlee@sdi.re.kr)

17. 국제경쟁력 강화 위해 '종합 물류 비전' 발표 (동경)

동경都는 국제경쟁 격화, 교토의정서 발효 등 사회경제 정세가 급변하는 상황에서, 광범위한 시각에서 물류 개혁이 필요하다는 인식 하에 '종합 물류 비전'을 수립했다. '종합 물류 비전'은 물류비용 절감, 서비스 향상, 환경부하 절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특히 향후 10년간 물류비용을 20% 절감한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이 비전은 바람직한 물류의 미래상으로 다음의 세 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첫째, 육·해·공 광역 네트워크가 형성된 물류다. 둘째, 지역의 활력을 향상하고 쾌적한 생활을 지탱하는 물류다. 셋째, 생활환경과 지구환경을 향상하는 물류다. 또한 이 비전은 동경도가 앞으로 추진할 물류대책으로 다섯 가지를 들고 있다. 즉, 효율적 물류 네트워크 구축, 국제적인 물류기능 충실, 수도권을 지탱하는 물류거점 정비, 지역 활성화를 위한 물류대책 추진, 물류개선을 통한 환경·도시생활 향상이 그것이다.

(<http://www.toshiseibi.metro.tokyo.jp/topics/h17/topi037.htm>)

>>> 전문가 검토의견

민간기업의 물류활동을 최대한 보장하면서도 물류활동으로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는 것이 도시 물류정책의 핵심이다. 이러한 취지에서 일반적으로 도시물류정책에서 시정부의 역할은 최소화되는 경향이 있으며, 도시물류정책은 도시내 화물자동차 위주의 통행과 조업주차에 관련된 정책이 많다. 국제도시로서의 위상을 높이고자 하는 서울시는 이번의 동경도 물류비전이 서울시에 적용가능한 부분이 있는지 선별해 연구한다면 좋은 참고가 될 것이다.

/ 이우승 도시교통부 연구위원(wooseung@sdi.re.kr)

18. 고용주 보조 통근승차권제도 도입 (핀란드 헬싱키)

2006년 초부터 헬싱키 지역에 대중교통 이용 증진을 위해 새로운 고용주 보조 통근승차권제도가 도입된다. 이 통근승차권은 정기승차권으로 하루 24시간, 1년 내내 유효하며 출퇴근뿐 아니라 여가여행에도 사용할 수 있어 근로자에게 큰 혜택이 된다.

고용주는 보조금 수준을 결정할 수 있으나, 최소한 이 통근승차권 요금의 25%를 보조해야 한다. 이 25%의 보조금에 대해서는 고용주 및 근로자 모두에게 면세 혜택이 주어진다. 아울러 이 제도 시행으로 근로자의 차량 이용이 줄어들면 고용주의 주차시설에 여유가 생기면서 더 광범위한 지역에서 근로자 채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고용주는 보조금을 헬싱키 광역정부와 직접 거래함으로써 회계절차도 간소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고용주 보조 통근승차권은 대중교통 이용을 더욱 용이하게 할 것이며, 자가용 이용 근로자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게 되면 교통혼잡 감소와 도심 대기오염 개선 효과도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http://www.hel.fi/wps/portal/Helsinki_en/?WCM_GLOBAL_CONTEXT=/en/Helsinki(* 2006년 1월 17일자 기사 참조))

>>> 전문가 검토의견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해 유럽 여러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다. 국내에서는 일부 회사가 정기권을 사원에서 무상 지원하고 있지만 제도적으로 혜택이 적은 상황이다. 서울시가 주도적으로 대중교통중심 정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민간의 노력과 역할 없이는 성과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민간기업의 대중교통 승차권 지원을 제도화하고 그에 상응한 혜택을 고용주에게 되돌려 준다면 많은 성과가 기대되므로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제도화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 김원호 도시교통부 부연구위원(wonor@sdi.re.kr)

19. 혼잡통행료 부과 시범실시 (스웨덴 스톡홀름)

스톡홀름시는 2006년 1월 3일부터 6개월간 혼잡통행료 부과제도를 실험적으로 도입했다. 혼잡통행료 도입의 주요 목적은 도심 접근성을 향상하기 위해 도심 혼잡을 줄이고 도심 환경도 개선하는 데 있다. 시당국은 혼잡통행료 도입으로 가장 분주한 도로의 교통량이 10%~15%정도 감소하면서 도시환경이 개선되고 대기오염도 감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혼잡통행료는 월요일 오전 6시30분부터 금요일 오후 6시29분까지 도심내부를 통과하는 차량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요금은 20SEK(약 2500원)로, 1일 60SEK(약 7700원)가 한도이며, 택시, 외국인 등록 자동차, 장애인차, 대체연료 사용 자동차는 면제된다. 스톡홀름시의 혼잡통행료 부과제도는 2006년 9월 총선거와 연계한 국민투표에서 법제화되면 상설화될 예정이다.

(<http://www2.stockholm.se/english/pdf/Stockholm%20News%204-05.pdf>)

한줄 뉴스

- 북경시 2005년 1분당 1대(총 57만대) 자동차 판매
- 북경시 청정원료를 사용하는 개별난방에 보조금 지급
- 스코틀랜드 국회, 가정쓰레기 수거 시 환경세(Green Tax) 부과
- 상해시, 질 높은 교통서비스 제공 위해 도시교통계획 요강 작성

20. 역사적 환경 보존을 위한 도시계획 지침 작성 (영국)

영국 문화재청(English Heritage)은 도시와 농촌의 역사적 환경 보존과 관련해 7가지 원칙을 발표했다. 7가지의 새로운 원칙을 만들게 된 동기는 역사적 건축환경 보존이 아직도 19세기식 원리·원칙에 기초하고 있다고 보고 21세기에 걸맞는 새로운 방법을 모색하고자 한 데 있다. 영국 문화재청이 정한 7가지 원칙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와 같은데, 현재 관계전문가의 검토를 받고 있는 중이다.

1. 역사적 환경은 모두가 향유해야 한다.
2. 역사적 환경의 가치를 이해하고 유지하려는 근본적 노력이 필요하다.
3. 누구나 역사적 환경보전에 공헌할 수 있다.
4. 장소성의 가치와 중요성을 인식한다.
5. 역사적 장소 및 장소성의 관리와 그 가치의 지속적인 유지가 필요하다.
6. 역사적 환경을 훼손하거나 변경 결정시 합리적이고 투명한 이유를 제시한다.
7. 역사적 환경 보존과 관련된 자료와 변경사항을 문서화한다.

(Planning, 2006. 2. 8)

21. 베를린市와 브란덴부르크州 공동의 미래전망 모델에 대한 공개토론 계획 (베를린)

독일 베를린市 브란덴부르크州는 공동으로 발전모델을 정하고 공개토론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본 토론회는 '수도지역으로서의 베를린, 브란덴부르크 - 유럽의 메트로폴리스'라는 슬로건 아래 계획되었으며, 두 지역의 강점과 잠재력을 기반으로 모델을 제시해 다른 유럽 대도시와의 경쟁에서 주도권을 차지하려는 목적으로 준비되었다. 공개토론을 통해 두 지역은 융합의 관점에서 15년 후를 예상한 공동의 미래 모델을 설정하기로 했다. 집중의 분권화를 지향하는 이 모델의 주요 내용은, 특별한 강점과 잠재력이 있는 곳을 선정해 미래를 위한 의도적인 지원을 기울이는 것이다.

(베를린주 보도자료, 2006. 2. 14)

(<http://www.berlin.de/landespressestelle/archiv/2006/02/14/35040/index.html>)

22. 유해화학물질 관리지침 작성 (상해)

상海市 상무회의는 전면적인 유해화학물질 관리를 위해 생산, 저장, 운송, 사용, 처리 등의 소과정에 따른 관리 방침을 담은 <상海市 위험화학품 안전관리방법>을 심사해 통과시켰다. 이를 위해 市政府와 市위원회는 우선 관리상의 책임소재를 명시했다. 독극물, 폭발물, 부패성 화학물 관리 중 상대적으로 취약한 부분인 운송관리를 중점적으로 강화하고자 하는 이 지침은, 조작 및 운송중의 기업간 책임과 정부감독의 원칙을 정하고 있다. 이 관리지침에 따라 상海市는 區, 縣 정부의 관리책임을 명시하는 한편 안전관리국, 공안국, 교통국, 항만국, 해사국, 품질관리국간의 상대적인 책임분담을 명시해서 전달했다.

(<http://www.shghj.gov.cn:8080/gh05/front/contentWord.php?contentId=7709>)

한줄 뉴스

- 런던대도시권위원회, 런던시장의 도시계획결정권 확대 필요성 제기
- 북경市 80개 '도시 내 촌락' 중 38개 지역에 대한 정비계획 확정
- 런던市 북부 아크웨이(Archway)커뮤니티 도심재개발사업에 주민 아이디어 공모 실시, 우수 아이디어에 50~100파운드(약 8만 5000원~17만원) 상금 지급 예정
- 영국 CABA(Commission for Architecture and the Built Environment), 주택단지 개발과 도심재개발과정에서 건강센터가 주민에게 미친 긍정적 사례 조사보고서 발간
- 3월 1일부터 '위락장소관리조례' 시행에 따라 북경市 위락장 새벽 2시부터 오전 8시까지 영업금지